

# ‘초롱이’ 이영표 헝가리 받으며 떠나다



밴쿠버 화이트캡스 동료 선수들이 28일(한국시간) 캐나다 밴쿠버의 BC플레이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콜로라도 라피츠와의 경기후 은퇴하는 이영표를 헝가리 치고 있다. /연합뉴스

## 월드컵 4강 주역... 고별전서 동료·구단 각듯한 예우 ‘감동 물결’

‘초롱이’ 이영표(26·밴쿠버 화이트캡스)가 동료와 구단의 각듯한 예우를 받으며 그라운드를 떠났다. 이영표는 28일(한국시간) 홈구장인 캐나다 밴쿠버의 BC플레이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콜로라도 라피츠와의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최종전에서 90분을 뛰었다. 최근 은퇴를 선언한 이영표가 선수로서 마지막으로 소화한 실전이었다. 밴쿠버는 이날 경기를 이영표에게 사실상

헌정했다. 입장권에 이영표의 얼굴을 새겨 넣고 구단 홈페이지에 특별 영상을 게시하는 등 그가 마지막으로 뛰는 경기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밴쿠버는 오른쪽 풀백으로 출전한 이영표에게 특별히 주장 완장까지 채웠다. 브라질 출신 골잡이 카밀로 산베소는 전반 43분 페널티킥으로 밴쿠버의 선취골을 터뜨리자 공을 집어 들고 골장 이영표에게 달려갔다. 그리고는 골의 영예를 머금은 공을 무릎을 꿇

고 두 손으로 이영표에게 바치는 세리머니를 펼쳤다. 이영표는 강원도 흥천소 출신으로 안양공고, 건국대를 졸업하고 FC서울의 전신인 안양 LG에서 2000년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의 4강 신화의 주역이 됐다. 이영표는 이후 에인트호번(네덜란드), 토트넘(잉글랜드), 도르트문트(독일), 알 힐랄(사우디아라비아)을 거쳐 2011년 12월 밴쿠버에 입단했다.

이영표는 “은퇴하지만 행복하다. (남부럽지 않은) 경력을 지니고 좋은 클럽에서 좋은 사람들과 활동하다가 떠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카밀로가 고마워할 줄은 알았지만 내 앞에서 무릎까지 꿇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는 미리 확답하기 어렵다면서도 “밴쿠버 구단에 2~3년 동안 남아 스포츠 마케팅을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태극전사, 스위스와 7년만의 리턴매치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유럽의 ‘강호’ 스위스가 벌이는 7년 만의 ‘리턴 매치’가 서울에서 열린다. 대한축구협회는 다음 달 1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7위인 스위스와 국가대표 친선경기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국내에서 열리는 마지막 A매치인 이번 평가전은 두 나라가 2006년 6월 독일 월드컵 조별리그 G조 3차전 이후 7년

## 내달 15일 서울서 평가전 29일부터 입장권 판매

만에 맞붙는 경기이기도 하다. 독일 월드컵 당시 0-2로 져 16강 진출의 기회를 놓친 한국으로서는 ‘실욕’의 기회가 된다. 그러나 ‘명장’ 오토마르 히츨베르크 감독이 이끄는 스위스는 2014 브라질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 ‘무패’로 E조 1위로 일찌감치 본선 직행 티켓을 확보하는 등 저력을 뽐내고 있다. 한편, 이 경기의 입장권은 29일부터 하나은행 지점과 축구협회 입장권 예매 사이트(www.kfaticket.com)에서 판매된다. 가격은 스페셜 15만원, 특석 9만원, 1등석 6만원, 2등석 4만원, 3등석과 휠체어 전용석은 3만원이다. /연합뉴스

## 페텔, F1 4년 연속 월드챔피언

### 인도 그랑프리 우승

‘포뮬러 원(F1) 황제’ 제바스티안 페텔(독일·레드불)이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포뮬러 원(F1) 그랑프리에서 4년 연속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했다. 페텔은 27일 인도 뉴델리의 부드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린 2013 F1 에어텔 인도 그랑프리에서 5.125km의 서킷 60바퀴(총길이 307.249km)를 1시간31분12초187에 달려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2위 니코 로스베르크(독일·메르세데스)를 29.823초 차이로 제친 페텔은 랭킹 포인트 25점을 더해 322점을 기록했다. 시즌 랭킹 2위인 페르난도 알론소(스페인·페라리)가 인도 대회에서 11위에 머물면서 둘의 격차는 115점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남은 세 차례 경주 결과에 관계없이 페텔의 시즌 우승

이 확정됐다. F1 4년 연속 종합 우승은 1957년 후안 마누엘 판지오(아르헨티나), 2003년 미하엘 슈마허(독일)에 이어 페텔이 세 번째다. 이 가운데 슈마허는 2004년 타이틀까지 독식하며 1950년 시작된 F1 사상 유일하게 5년 연속 우승의 대기록을 달성한 바 있다. 페텔이 2014년에도 F1 정상에 지키면 슈마허에 이어 사상 두 번째 5년 연속 챔피언의 영예를 누리게 된다. 올해 26세인 페텔은 또 역대 최연소 4회 연속 우승자가 됐다. 종전 기록은 슈마허의 34살이었다. 페텔의 소속팀 레드불도 컨스트럭터(팀) 부문에서 4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페텔의 소속팀 레드불도 컨스트럭터(팀) 부문에서 4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레드불은 이번 인도 대회에서 랭킹 포인트 25점을 더해 470점을 확보, 남은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우승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 윤석민 메츠 선발 투수 적합 연봉 500만~1000만달러 예상

### 美 스포츠 매체 SB네이션 보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투수 윤석민(27)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선발 투수로 적합하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미국 스포츠매체 SB네이션은 28일 뉴욕 메츠 관련 칼럼에서 윤석민의 야구 인생을 자세히 소개하며 그가 메츠의 선발 투수로 적합하다고 적었다.

SB네이션은 윤석민이 불펜 보직을 맡다가 2007년 풀타임 선발로 전환했으나 타선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평균자책점이 3.78였음에도 7승 18패를 기록하는 데 그쳐 ‘불운의 에이스’로 불렸다고 소개했다.

2011시즌에는 선동열 현 KIA 감독 이후 처음으로 투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지만, 이후 조금씩 하락세를 보였고 설명했다.

SB네이션은 윤석민이 미국에서 선발로 뛰길 원할 것이고, 구단도 그를 선발로 활용할 확률이 높으며 그의 연봉을 500만 달러부터 1000만 달러까지로 예상했다.

또 “조너선 니스, 딜런 지, 잭 휠러가 2014 시즌 메츠 선발 로테이션을 지킬 예정이나 부상 경력이 있는 헨리 메히아가 선발로 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며 “메히아가 건강하다고 해도 선발 로테이션에 한 자리가 남는다”고 덧붙였다.

SB네이션은 “류현진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로부터 받은 6년 3600만 달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윤석민은 류현진보다 나은 투수가 아니다”며 “류현진이 좌완이고 지구력이 뛰어난 반면 윤석민은 류현진보다 한살 많은 우완이고 부상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메츠와 윤석민이 우선 3년 계약을 맺는 것이 구단으로서도 합리적이고, 윤석민으로서도 30세라는 적당한 나이에 다른 구단을 알아볼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8일 무등경기장에서 개막한 KIA 타이거즈가 호남고교야구대회에서 진흥고 투수 최상인이 광주일고 타선을 상대로 역투하고 있다.

## 타이거즈기 호남 고교야구 열전 돌입

### 6개팀 토너먼트 대결... 동성고·광주일고 첫 승

호남지역 고교야구 선수들의 열전이 시작됐다. 광주일고는 29일 오전 10시 인상고와 결승전을 다룬다. 동성고는 오후 12시30분 효천고와 대결을 벌인다. 대회 결승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펼쳐진다.

한편 이번 대회는 1·2학년이 주전으로 출전하면서 지역 팀들의 내년 시즌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반가운 얼굴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이기도 하다.

28일에는 흥익대 장재근 감독이 대회 현장을 찾아 지역 유망주들을 살펴봤고, 광주일고 출신의 서건창(넥센)과 동성고를 졸업한 노진혁(NC)·김원중(롯데) 등 프로야구 선수들도 후배들을 응원하기 위해 무등경기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채지선이 출격할 광주일고도 진흥고를 상대로 14-3 대승을 거두며 준결승에 진출했

다. 광주일고는 29일 오전 10시 인상고와 결승전을 다룬다. 동성고는 오후 12시30분 효천고와 대결을 벌인다. 대회 결승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펼쳐진다. 한편 이번 대회는 1·2학년이 주전으로 출전하면서 지역 팀들의 내년 시즌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반가운 얼굴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이기도 하다. 28일에는 흥익대 장재근 감독이 대회 현장을 찾아 지역 유망주들을 살펴봤고, 광주일고 출신의 서건창(넥센)과 동성고를 졸업한 노진혁(NC)·김원중(롯데) 등 프로야구 선수들도 후배들을 응원하기 위해 무등경기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KIA타이거즈 새 단장에 허영택씨

### 김조호 전 단장 상근자문역

KIA 타이거즈가 허영택(사진) 신임 단장 체제로 운영된다. KIA가 최근 신임단장 인사를 단행했다. KIA가 최근 신임단장 인사로 단행했다. KIA가 최근 신임단장 인사로 단행했다. KIA가 최근 신임단장 인사로 단행했다.



바 있다. 김조호 전임단장은 상근자문직을 맡는다. ‘타이거즈 재건’이라는 중임을 맡은 허영택 단장은 28일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은 데 이어 29일 김 전 단장과 마무리협약이 꾸러진 일본 오키나와로 건너가 선수단과 상견례를 가질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